

#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ting Culture of Wan-Young in the Joseon Dynasty

옥 영 정 (Ok, Young-Jung)\*\*

## ◁ 목 차 ▷

1. 서 언	3.2 조선후기
2. 전주의 역사와 출판문화적 특성	4. 조선시대 완영 간본과 특성
3. 책판의 기록	5. 결 언
3.1 조선전기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지역의 고인쇄 문화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화하여 조선시대 호남의 감영인 完營에서 이루어진 고인쇄문화의 경향과 면모를 알아본 것이다. 전주는 고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전라도지역의 교통요충지로 호남의 큰 고을 이었고 인쇄출판의 규모에서도 간행된 서책의 종수가 대단히 많았다. 우선 완영에서 간행된 서적 중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과 책판목록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책판목록을 종합하여 전주지역 간본의 내용과 간행배경을 담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다루어서 간행된 서적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 감영의 출판은 크게 왕명에 의한 경우와 해당 지역 감영의 주도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실록의 기록과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완영의 서책 간행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책판목록에 수록된 다른 지역의 간본연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要語: 인쇄문화, 전주, 감영, 완영, 출판문화, 호남, 책판목록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수안보에서 개최된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복원사업 관련학술회의』,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문화>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完營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부교수(gabinja@hanmail.net)

접수일: 2011년 12월 12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features of old printing cultures in Wan-Young, a provincial office of the Honam (Jeolla Province) by synthesizing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old cultural activities of printings. Jeonju, as a large town in the Honam, was a transportation hub in the Jeolla provincial areas throughout Goryeo and Joseon periods, and there were a lot of books published in this area. Firstly, the study tried to identify more concretely the characteristics of books published in this area by investigating the currently known editions and catalogs of woodblocks, and then examining several cases with the content of editions and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Publication of provincial offices was usually carried out by either king's orders or provincial office's demand, Wan-Young did the same. This study classified and looked into the type of books published by Wan-Young by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he records of *Sillok*, and presented them in table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could be used for systemizing researches on local publications in other areas, listed in the catalogues of woodblocks.

Key words: Printing culture, Jeonju, Provincial office, Wan-Young,  
Publishing culture, Honam, Catalogue of wood blocks

## 1. 서 언

書籍은 著者의 사상이나 지식, 혹은 감정을 담은 것으로 고급을 막론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그 내용을 보전, 보급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서적을 인쇄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방의 고인쇄문화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그 지역 간행의 서적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전반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서적의 인쇄활동을 중앙에서 많은 부분 담당하였으나 그 보급에 있어서 개개인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중앙과 멀리 떨어진 지방의 경우 서적의 간행과 유통을 각 지방의 감영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때때로 왕의 지시나 관찰사의 의지에 따라 서적을 간행하였고, 지역뿐 아니라 중앙의 수요에도 응해야했다. 이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인쇄업무가 지방에서 감영을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적 간행을 위한 체계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영의 역할은 지방문화사뿐 아니라 조선시대 고인쇄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문화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고인쇄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었는데, 각 지역의 전반적인 서책간행 활동을 비롯하여<sup>1)</sup> 서원과 사우의 간행본,<sup>2)</sup> 지방의 목활자 인쇄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연구,<sup>3)</sup> 각 지방 소재의 책판 조사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 지역의 서책 간행 활동에

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66).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1).

2) 宋日基, 『全南 書院의 木板』(光州: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朴章承, “慶州소재 書院·祠에서 刊行한 典籍考,” 『新羅文化』 第19集(2001. 8), 227-268.

배현숙, “紹修書院의 收藏과 刊行書籍考,”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8), 263-296.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237-271.

3) 玉泳晷,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위, 2002).

대한 연구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지리적 범위와 규모가 컸던 거점 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sup>4)</sup> 근래에는 전자에 비해 작은 규모의 고을이라도 출판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5)</sup> 이들 연구는 한 지역의 서책간행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지역의 인쇄문화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글은 이러한 지역의 고인쇄문화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화하여 조선시대 호남의 감영인 완평에서 이루어진 고인쇄문화의 경향과 면모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주는 고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전라도지역의 교통요충지로 호남의 큰 고을 이었고 인쇄출판의 규모에서도 간행된 서책의 종수가 대단히 많았다. 호남 지역 전반의 고인쇄문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쇄출판의 규모가 크고 유래가 깊은 남원, 나주 등과 함께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지역이기도 하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 중에 고인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 고인쇄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주로 범위가 큰 몇몇 지역이나 더 큰 범위의 지방 및 전국 규모의 조사 연구에서<sup>6)</sup> 그 지역의

- 
- 4) 權熙昇,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1).  
尹炳泰, “忠淸地方의 印刷文化,” 『百濟文化』 v.15(忠南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1984), 31-51.  
車勇杰, “忠淸地域 典籍調査의 現況,” 『湖西文化研究』 v.7(1988), 149-178.  
李世烈, “忠淸地域 典籍文化에 관한 考察,”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大學院, 1989).  
柳基石,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大學院, 1990).  
趙婷化, “朝鮮朝 後期 嶺南官版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95).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 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을 中心으로 -,”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 5) 姜惠英,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國會圖書官報』 제20호(1983), 47-59.  
南權熙,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研究,” 『新羅文化』 第19集(2001. 8), 195-226.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219-252.  
姜惠英, “南原地域 印刷文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5-34.  
玉泳畧, “冊板目錄을 통해본 朝鮮時代 善山地域의 木版印刷文化 研究,”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8), 101-128.  
玉泳畧,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印刷文化 研究,” 『書誌學報』 제30집(2007. 12), 101-128.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開刊된 17세기 책판 연구,”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8), 251-271.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2007).

책판에 대한 규모와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완영에서 간행된 서책의 종류에 대해서는 유기석(1990), 이태영(2006),<sup>7)</sup> 최지선(2007)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윤곽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완영에서 간행된 서적 중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과 책판목록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책판목록을 종합하여 전주지역간본의 내용과 간행배경을 담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다루어서 간행된 서적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다른 지역의 간본연구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완영 간행 서책의 시기적 범위는 감영이 존속하였던 조선시대 이전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인쇄활동이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이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2. 전주의 역사와<sup>8)</sup> 출판문화적 특성

전주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완주군과 김제시에 접하고 있다. 삼한 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였고, 完山이라 불리게 된 것은 백제가 영유하면서부터였다. 백제가 멸망한 후 폐지되었던 완산주가 다시 설치되고 총관을 보내면서 중심행정 도시가 되었다. 그 후 757년 경덕왕 때에 주군현의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의 전주가 되었다. 당시 1주 1소경 10군 31현을 통치하였는데 행정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현재의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요지였다. 또한 이후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國都이기도 하였다.

936년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려의 영토가 되면서 안남도호부를 설치

6) 윤병태, “한국의 書目에 대하여,” 『圖書館·情報學論集』 창간호(1984. 4),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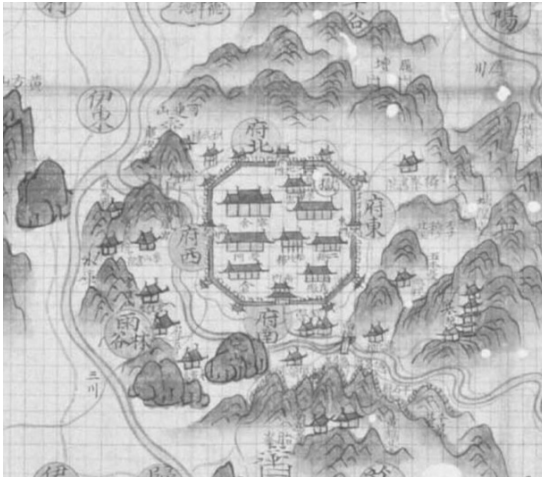
윤병태, “韓國地誌속의 冊板에 대하여,” 『古書研究』 12(1995. 12), 33-50.

7) 이태영, <완판본과 완영 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8) 이 절의 전주 역사 부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유기석, “호남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1990),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2007) 등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했으나 4년 후 전주로 개칭하였다. 성종 2년(938)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는데 호남지역에는 나주 승주와 더불어 전주에 설치되었다. 현종 9년(1018)에는 전국을 경기와 五道兩界의 체제를 갖추면서 오늘날의 명칭인 전라도가 처음 명명되었다. 이때 전주를 안남대도호부라 하였으나 현종 13년(1022) 다시 전주목이 되었다. 이 무렵부터 행정체계가 전주로 개편되고 지역을 관장하는 각종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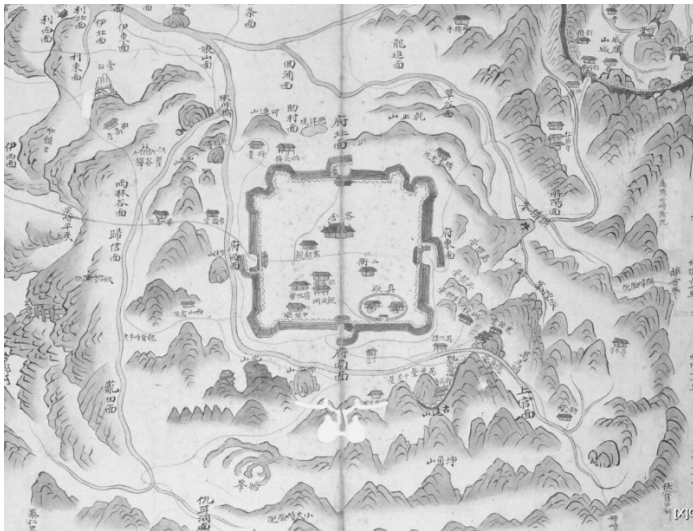
공민왕 4년(1355)에 전라도안렴사 정지상이 원나라의 御香使인 繆思不花를 감금시킨 사건으로 부곡으로 강등되었으나 다음해 다시 완산부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의 전주는 전라북도의 계수관으로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되어 문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全公州道와 山南道에 속한 많은 역참들이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다.



<그림 1> 비변사지도의 전라감영(규장각소장)

조선 건국 후 전주는 개국을 주도한 이성계의 본향으로 중시되어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의 지방제도는 고려말의 것을 토대로 중앙집권에 유리하게 변화시켰는데,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태종 3년

(1403) 전주부로 개칭된 이래로 구한말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1410년 이성계의 화상을 봉안한 어용전이 창건되었는데, 1442년에 경기전으로 개칭되었다. 세종 21년(1439) 전주사고가 설치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손홍록과 안의가 태조의 어용과 전주사고의 전적을 내장산을 거쳐 묘향산으로 옮겼으며 이 사고의 실록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림 2> 해동지도의 전라감영(규장각소장)

18세기부터 관찰사의 留營이 이루어지면서 전주부성을 증축하기 시작하는데 1767년에 화재가 나 성문루가 소실되었으나 다시 중건하여 남문과 서문을 각각 豊南門, 沛西門이라 하였다. 순조 12년(1812) 남고산성을 중건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이 일시 함락되기도 하였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 이후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전 주부는 전주군으로 개편되어 21개 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주면으로 되었다가 1931년 전주읍으로, 1935년 전주부로 승격되었다.

1889년 프랑스인 신부 보드네 윤(Baudounet 尹)이 전주에 와서 천주교를 전파하였는데, 그 결과 1914년 7년 만에 전동성당이 준공되었다. 또한, 기독교의 교육사업도 활발하여 1901년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가 설립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전주시로 개칭된 이래 90년대 말까지 주변 지역의 흡수와 병합, 시 내부의 경계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림 3> 여지도의 전라감영(규장각소장)

전주는 조선시대 전시대에 걸쳐 호남지역 행정의 거점이었다고, 조선왕조의 본향으로 많은 지식인이 살고 있었으며, 上品의 종이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문화학술의 발전과 보급에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학은 중종 대 이후 본격적인 중앙 진출을 하였는데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기묘사림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sup>9)</sup> 이후 이이와 성혼을 중심으로 학파가 성립되어 김인후, 이항, 기대성, 기정진, 강항, 전우 등이 그 명맥을 이었다.

전주에서의 종이 생산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9) 최지선, 상계논문.

다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유추해보자면 『고려사』 인종 23년(1145) 5월에 전국 각 고을의 땅 중 품질이 나빠 밭을 만들 수 없는 곳에 닳나무 등을 심도록 권장하였다고 하여 고려시대부터 닳나무의 재배를 제도화하여 지방관아에서는 반드시 닳나무 밭을 가꾸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와 같은 기록에서 전주의 종이는 남원과 더불어 上品이라고 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경술(1430) 9월 11일에 윤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 중, “처음 造紙所를 설치했을 때 그 종이의 질이 남원이나 전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sup>10)</sup>라는 말이 있어 전주에서 종이를 생산했을 뿐 아니라 그 질은 최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당시의 종이 생산지와 그 원료의 생산지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호남지방이 종이나 원료의 생산면에서 가장 많고, 특히 전주는 원료와 종이 모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각 군현별 정확한 생산량은 알 수 없지만 동일한 생산량으로 가정한다면 호남 지역은 전체 생산량의 57%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다.<sup>11)</sup>

그리고 『경국대전』 工典, 工匠에는 京外紙匠의 분포에 대해 나와 있는데 外紙匠의 수는 704명으로 경상도(265명) 다음으로 전라도(237명)가 많다. 그러나 1개의 군현 당 평균 지장수를 따져보면 경상도는 3.96명이나 전라도는 4.23명으로 경상도보다 많아 製紙가 전라도의 중심 수공업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전라감영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대부분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는데,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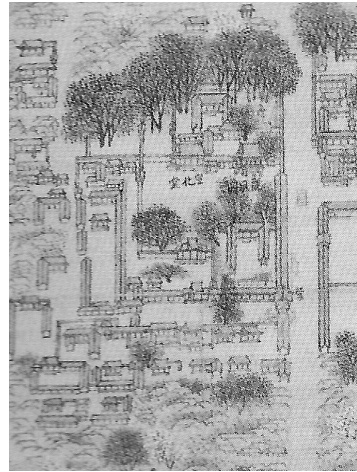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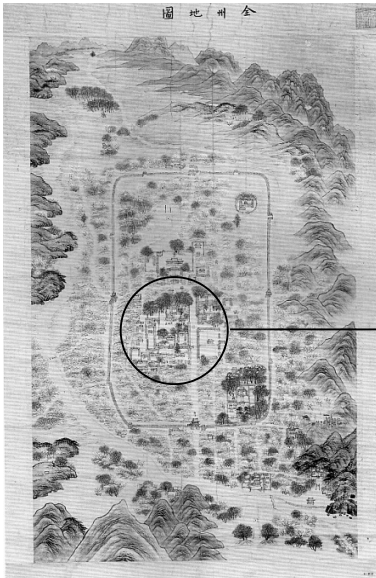
10) 『세종실록』 세종 12년 경술(1430) 9월 11일.

禮曹判書申商啓: “織造婢, 母聚官門, 依私家例量給苧麻, 每歲一人織二匹以納, 則庶事簡, 而織婢不厭其苦矣。” 上不答。商出, 上謂代言等曰: “申商之言, 不可也。” 對曰: “公家之事, 何可若是?” 上曰: “進貢非數年之事, 不可不布置。予意以謂凡事專治, 則無不成, 今別立一司, 擇人而任之, 得如典廄(署) [署] 令金器之者, 職高則授行職, 職卑則授本品, 久任專治, 則事可易成矣。” 對曰: “上教誠然。” 上曰: “古有織造司乎?” 對曰: “未知。” 尹粹曰: “當新設紙造所, 皆以爲紙品必未及南原、全州, 今紙造所紙品極高, 反不用南原、全州之紙。若設一司, 專治織造, 則亦必極善。” 上曰: “新設紙造所時, 許稠以爲不可, 紙品之善, 今乃若是, 其議設織造司便否以啓。”

11) 김병남, “전주 지역의 한지 발달과 현실,” 『남도민속연구』 10(남도민속학회, 2004).

12) 김병남, “전주 지역의 한지 발달과 현실,” 『남도민속연구』 10(남도민속학회, 2004).

의 피해 정도와 이후 복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sup>13)</sup> 다만 현재 남아 있는 18세기 이후의 전라감영과 관련된 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완영이 공간적으로 타 감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책의 인출과 관련된 紙所와 印出房이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들 건물은 전라감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 중 1790~179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全羅道觀察使營誌』에는 지소만 보이나 1871년에 편찬된 『湖南邑誌』의 <完山誌>에는 모두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설치된 시기는 지소의 경우 1767년 전주에서 있었던 대화제로 소실된 이후부터 1791년 이전이고, 인출방의 경우 1790년 이후부터 1871년 이전 사이였음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소장의 『전주지도』에<sup>15)</sup> 印房의 건물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전주지도(규장각소장 보물1586호)    <그림 5> 전주지도 확대(규장각소장)

13) 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전라감영연구』 (2008).

14) 홍승재, 상계논문.

15) 문화재청 편, 『한국의 옛 지도』 (대전: 문화재청, 2008), 368.

전라 감영은 지방감영 중에 가장 많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재정 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sup>16)</sup> 17세기 이후 전라감사와 전주부윤을 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감사의 巡營보다는 留營에 더 비중을 둔 것이었다.<sup>17)</sup> 이에 따라 감영 시설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조선 전기에는 없었던 건물로 유명화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sup>18)</sup>

조선시대 완영의 서적간행과 관련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서지연표』에 나타난 기록만도 세종 5년에서부터 철종 10년까지 총 60회인데,<sup>19)</sup> 이는 완영이 경상감영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 출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다.

한편 완영과 전주부의 관계는 대부분의 시기에 겹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회통』 吏典 외관직을 보면 전라도에 전라도 관찰사와 전주부윤은 「속대전」부터 겹임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 초기부터 외관이 외관을 겸직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여 일부는 제도화 되어 법전에 규정되었다.<sup>20)</sup> 조선왕조실록의 태종 8년 무자(1408) 7월 13일 각도의 외관직을 제수한 기사에서 조선 초기 겸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趙璞으로 東北面 都體察使를, 林整으로 東北面 都巡問察理使 兼 永興府尹을, 李稷으로 西北面 都體察使를 삼고, 朴信을 起復시켜 西北面 都巡問察理使 兼 平壤府尹을 삼고, 曹瑗으로 鷄林安東道兵馬都節制使 兼 鷄林府尹을, 尹子當으로 晉州尙州道 兵馬都節制事·判昌原府事를, 安處善으로 判晉州

16)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 (역사비평사, 2008).

17) 김태웅, “조선후기 전라감영의 재정구조와 운영,” 『전라감영연구』 (2008).

18) 『완영사례』를 보면 완영의 公廩과 각소의 창고가 나와 있는데, 공혜에는 선화당, 내아, 관풍각, 응청당, 연신당, 포정루, 비장청, 진상청, 영리청, 작청, 소성청, 사령청, 영노청, 빈약당, 김울당, 재가군관청, 교련청, 훈련청, 주필당, 병방군관청, 별군관청, 진율청, 의국청, 고마청, 영선청, 도리청, 인청, 영군청, 순령수청, 군우청, 계서청, 선자청이 있고, 각소의 창고에는 영고, 공고, 군수고, 보선고, 의국, 보군고, 지소, 진홀고, 양사고, 마위고, 수성청, 고마고, 영선고, 군기고가 있다.

19) 최지선, 상계논문, 97.

20) 임선빈, “조선초기 外官制度의 운영구조와 특징 - 東班 外官職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215.

牧事를, 尹向으로 都觀察使 兼 完山府尹을, 柳廷顯으로 충청도 도관찰사·判 淸州牧事를, 李原으로 경상도 도관찰사·領尙州牧事를, 李龜鐵로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領洪州牧事를, 姜思德으로 진라도 병마 도절제사·領羅州牧事를, 李之實로 安州 등처 都兵馬使·判安州牧事를 삼았다.<sup>21)</sup>

고려 후기에 수령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수령과약방식에 한계가 드러나 여말에 관찰사제 도입,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점차 확립되었다.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고려시대 안찰사의 후신으로 태종 2년 양계 이남에 관찰사제가 확립되었는데 진라 감영의 개설은 늦어도 세종 29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sup>22)</sup> 관찰사에 종전의 안찰사보다 훨씬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 세종 초만 해도 외방 수령의 직계가 가능했으나 관찰사제 확립이후 관찰사만이 직계가 가능한데, 다만 종 2품인 경주부윤과 전주부윤은 제외되었다. 개국 초 관찰사는 육조의 평가를 받았으나 세종은 이렇게 되면 관찰사의 독자적 행정능력 발휘에 저해된다하여 상급기관의 간섭 받지 못하게 하였다. 수령 간에는 서로 병렬적인 관계로 양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령은 관찰사 관할 하에 있었고<sup>23)</sup> 왕명에 의거한 관찰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배받았기 때문에 관찰사 이외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sup>24)</sup>

21) 『태종실록』 태종 8년 무자(1408) 7월 13일.

以趙璞爲東北面都體察使, 林整東北面都巡問察使兼永興府尹, 李稷西北面都體察使, 起復朴信爲西北面都巡問察使兼平壤府尹, 曹瑗雞林安東道兵馬都節制使兼雞林府尹, 尹子當晉州尙州道兵馬都節制使、判昌原府事, 安處善判晉州牧事, 尹向全羅道都觀察使兼完山府尹, 柳廷顯忠淸道都觀察使、判淸州牧事, 李原慶尙道都觀察使、領尙州牧事, 李龜鐵忠淸道兵馬都節制使、領洪州牧事, 姜思德全羅道兵馬都節制使、領羅州牧事, 李之實安州等處都兵馬使、判安州牧事。

22) 이희권, “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진라감영연구』 (2008), 4-7.

23) 임선빈, “조선초기 外官制度의 운영구조와 특징 - 東班 外官職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217-220.

24) 이희권, “조선후기의 수령과 그 통치기능,” 『진라문화논총』 (전북대 진라문화연구소, 1988).

### 3. 책판의 기록

완영에서 간행된 서책의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실물로 남아서 현존하는 자료의 간기로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의 책판목록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책판목록은 당시에 서적을 간행하고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지방의 출판문화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전주지역은 기존에 알려진 대부분의 책판목록에서 최다의 책판을 보존한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전주 지역에 잘 조성된 출판문화의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완영의 책판과 전주지역의 책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만 『완영책판목록』이라 하여 감영의 책판임을 명시한 기록이 전주지역의 책판을 다룬 책판기록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완영의 책판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여겨진다.

#### 3.1 조선전기

전국의 책판에 대한 기록은 1554년 魚叔權이 편찬한 『攷事撮要』의 내용이 그 처음이다. 『고사촬요』는 조선 중기 魚叔權이 편찬한 것으로 명종 9년(1554)에 간행하였다. 이후 영조 7년(1771) 서명응이 그 내용을 대폭 개정 증보하여 『고사신서』를 출간하기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續撰과 改修를 거듭하였다.<sup>25)</sup> 현존 最古本은 선조 1년(1568)에 발간한 乙亥字本이다. 책판의 내용에 추가되어 있는 그 중 宣祖 18年(1585)에 간행된 목판본은 영인본과 일본에 소장된 寫本이 알려져 있으며 내용 중 책판목록을 비롯하여 書冊市准과 書冊印紙數 등의 기록이 있다. 『고사촬요』의 선조1년본과 선조18년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선조1년본의 종수는 36종이며 17년 후인 선조 18년의 기록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7종이나 된다. 비록 17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 수록된 전주 책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종수

25)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 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을 中心으로 -,”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6.

가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경서 외에 의서, 농서 등을 포함하는 실용서적이 많이 증가하였다.

<표 1> 「고사촬요」의 완영 책판기록

攷事撮要(宣祖1年)	攷事撮要(宣祖18年)
啓蒙 戒酒書 古文眞寶 救急簡易方 歸去來辭  農事直說 農書  陶隱集(陶隱先生集)(半失)  銅人經(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剋) 東槎集  孟子大文 牧隱集(牧隱詩稿) 文章軌範 兵衛森  三元延壽書(三元參贊延壽書) 傷寒賦  釋尊儀式 小學 小學 詩家一旨	江陵金氏族譜 經筵講義(朱子經筵講義) 啓蒙 戒酒書 古文眞寶 救急簡易方 歸去來辭 南軒文集(南軒先生文集) 農事直說 農書 大學 陶隱集(陶隱先生集)(半失) 東文粹 銅人經(新刊補註銅人臉穴鍼灸圖經)(剋) 東槎集 馬醫方(新編集成馬醫方, 新編牛醫方) 脈訣(纂圖方論脈訣) 孟子大文 牧隱集(牧隱詩稿) 文章軌範 兵衛森 詞訟類抄(詞訟類聚) 三元延壽書(三元參贊延壽書) 傷寒賦 傷寒指掌圖(傷寒活人指掌圖) 釋尊儀式 小學 小學 詩家一旨 十九史略諺解(古今歷代十九史略諺解) 養蒙大訓 陽村集(陽村先生文集)

攷事撮要(宣祖1年)	攷事撮要(宣祖18年)
<p>歷代授受圖(歷代教授承統之圖) 禮記 王右軍書(王右軍墨戲)  律學解頤 人皇法體 蠶書  貞觀政要 正俗(正俗篇) 周易 中庸集略 指掌圖(傷寒活人指掌圖)  陳后山詩(陳后山詩註) 天運紹統  辟瘟方(簡易辟瘟方)  胡傳春秋(春秋胡氏傳) 孝經</p>	<p>諺解產書 呂氏鄉約 呂氏鄉約(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歷代授受圖(歷代教授承統之圖) 禮記 五臟圖(歐希範五臟圖) 王右軍書(王右軍墨戲) 龍龕手鑑 韻會玉篇 陸宣公奏議(唐陸宣公集) 律學解頤 醫學正傳(新編醫學正傳) 人皇法體 紫陽文集 蠶書 蠶書 諺解絕句 貞觀政要 正俗(正俗篇) 周易 中庸集略 指掌圖(傷寒活人指掌圖) 診脈須知 眞西山集(眞西山文集) 陳書 陳后山詩(陳后山詩註) 天運紹統 青丘風雅(佔畢齋精選青丘風雅) 推句 則言 辟瘟方(簡易辟瘟方) 學葩通辨 杏村法帖大字 胡傳春秋(春秋胡氏傳) 孝經</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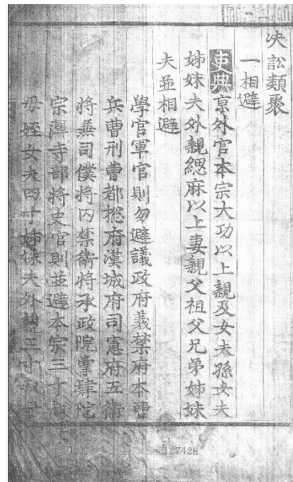
『고사촬요』에 수록된 책판은 모두 조선전기에 간행된 서적으로 그 전모가 실물자료로 파악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근래에는 “陣書諺解”와 “絶句”로 서명이 정해졌던 책이 “諺解絶句”와 “陳書”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sup>26)</sup> 그 밖에도 그 서명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4>는 조선 전기 완영에서 간행된 간본에 대한 목록으로 『고사촬요』 전주부에 수록된 목록을 토대로 그 현존본에 대한 파악을 시도해 본 것이다. 개인소장본으로 남아있는 것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고사촬요』만으로는 간본의 서지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목록 작성 당시 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서지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판본을 찾았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간본에 간기를 신지 않았을 경우를 감안하여 관련 문헌기록과 일반적인 조선 전기 판본의 특징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6> 언해절구

26) 남권희, “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8(1999. 8), 204-209.

한편 조선전기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서적으로 완영에서 간행된 책도 있다. 선행연구<sup>27)</sup>에 의해서 그 활자 명칭이 “全州 甲寅字體 木活字”로 명명된 것으로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지침서인 『決訟類聚』를 인출할 때 쓰인 목활자이다. 『決訟類聚』는 金伯幹이 『大明律』, 『經國大典』, 『大典註解』, 『大典續錄』, 『大典後續錄』과 各年 受教 등에서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가려 뽑아 판결에 사용하고자 편찬하였고 이를 沈希安의 교정을 받아 출판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金伯幹의 아들 金泰廷이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인 1585년에 비로소 印行된 책이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1책이 목활자본으로 있으며 1585년 당시 光州 牧使 丁焯와 全羅道觀察使 金泰廷의 발문이 있고 그 다음 장에 印行당시 인물기록으로 全羅道觀察使 金泰廷, 全羅道都事 沈友正, 全州府尹 南彥經, 全州府判官 崔夢臣의 명단이 있으며 마지막장에 “全州開刊”의 印記가 있다.



<그림 7> 결송유취

활자의 모양은 甲寅字體를 닮은 필서체이며 10행18字이고 글자의 획이 마모되지 않은 초기 印本이다. 전주에서 印行된 사실이 명확하고 그 印行年代를 발문

27) 옥영정, 상계논문.

이 쓰여진 1585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임진왜란 이전에 사용된 목활자인본으로서 의미도 있다.

### 3.2 조선후기

책판목록으로 『攷事撮要』 이후 官撰으로는 정조의 명으로 1796년 편찬된 『鏤板考』가 있다. 그 외에도 전주지역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목록으로 여러 종류가 남아있는 각종 冊板目錄類가 있다. 이 冊板目錄類은 당시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책판 소장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주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冊板目錄類는 『冊板置簿冊』,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등의 기록인데<sup>28)</sup>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소장되어 있던 책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冊板置簿冊』에서 57종, 『三南所藏冊板』에서 56종, 『諸道冊板錄』에서 73종, 『完營冊板目錄』에서 81종,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서 16종, 『各道冊板目錄』 44종, 『冊板錄』에서는 70종, 『鏤板考』에는 34종, 19세기말의 『完營客舍冊板目錄』에는 75종을 기록하고 있다.

『冊板置簿冊』은 영조 16년(1740)경에 전라도, 경상도 등 7개 도의 책판목록을 수록하고, 하단에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주의 책판항목에서는 위봉사, 송광사, 석계서원 등 전주 인근에 책판보관처를 수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三南所藏冊板』은 영조 19년(1734)경에 편찬한 것이다. 필사본으로 三南, 즉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소장된 책판목록이다. 책판의 刑秩 여부, 소장된 책판,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인근의 책판보관처로 위봉사, 송광사, 석계서원외에도 華山書院을 들고 있다. 특히 私刊本으로 史略, 三國志 등을 언급하고 있다.

28)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諸都册板錄』은 영조 25년(1750)경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의 소장 책판목록이다. 책의 내용은 지역명과 서명,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73종으로 비교적 그 수량이 많으며 감영에서 새로이 갖춘 책판으로 梁大司馬實記, 正音通釋, 左傳 등을 들고 있다.

『完營册板目錄』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등의 감영과 각도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을 영조 35년(1759) 2월 일자로 조사한 기록이다. 책의 내용은 지역명과 서명, 서명 하단에는 용지와,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 문집일 경우 저자 사항, 刊缺 여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책판 중에 挹翠集, 增補韻考, 宋名臣錄, 尉僚子, 李衛公, 孫武子, 太公六韜, 屯菴集 등은 南倉에 옮겨서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嶺湖列邑所在册板目錄』은 영조 36년(1760)경에 필사된 것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목록이다. 지역과 路程, 書名과 하단에 인출할 때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완결 여부나 부분적으로 책판의 상태 등을 기록하고 있다.

『各道册板目錄』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의 책판목록으로 정조 2년(1778)경에 편찬한 것이다. 각 지역명과 書名, 書名 하단에 인출할 때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徐有渠가 正祖의 命에 의해 편찬한 『鏤板考』는 당시 서울의 官牙와 八道監營과 각 府, 牧, 郡, 縣, 書院, 寺刹, 私家에 장치되어 있는 책판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御撰書, 御定書, 經部, 史部, 子部, 集部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사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다시 類로 세분하여서 분류하고 있다. 전주 감영의 책판을 34종 수록하고 있다.

『各道册板目錄』은 憲宗 6년(1840)에 편찬된 것으로, 내용은 京畿, 江原, 忠淸, 黃海, 全羅, 慶尙, 平安道 등 7개도의 각 군에 있는 책판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은 書名, 册數, 刊缺여부, 容入紙의 張數 등이며 전주의 책판은 61종을 담고 있다. 私板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완영 책판 수량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1885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完營客舍册板目錄』은 전라도에 소장된 책판을 기록한 것이다. 기술은 書名, 卷首, 印出時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으며 刊缺 여부는 각 지방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 완영객사 38종, 전주 私板

38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책의 마지막에는 당시의 목판 인쇄에 사용되는 工賃을 적어두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상과 같은 전주의 책판목록은 감영의 책판보존현황과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후기로 갈수록 그 종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19세기이후에는 사판이 증가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책판목록별 변화의 양상과 개별 책판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책판목록에 기록된 완영의 책판내용은 <표 2>와 같다.

한편 완영의 관찰 하에 보관해오던 책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다. 전주향교의 장관각에 5,059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판은 1899년에 전라도 관찰사 趙翰國이 전주향교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보관한 것으로 책판목록에도 수록되어 있는 資治通鑑綱目(完營), 東醫寶鑑, 性理大全, 栗谷全書, 朱子大全, 增修無冤錄諺解, 史記, 史略 등이다.<sup>29)</sup> 책판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의 내용

서명	소장처	현재책판수	완영책판목록 종이 수량
資治通鑑綱目		1,775	백지 167속
朱子大全		1,471	백지 150속
性理大全		576	백지 55속 6장
東醫寶鑑		151	백지 41속
栗谷先生全書		491	
增修無冤錄諺解		53	
史記		484	
史略		56	백지 2속5장
湖南三綱錄		1	
朱書百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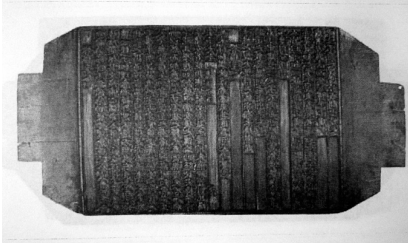
29) 전북대박물관,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전주: 전북대박물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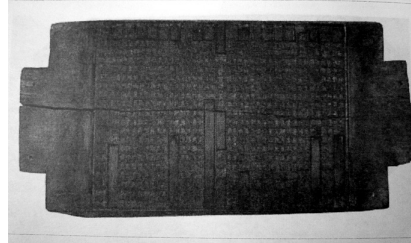
전주향교



전주향교 장판각



주자대전 책판



동의보감 책판

조선후기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서적으로 완영에서 간행이 이루어진 책으로는 ‘지갯다리획인서체자’로 알려진 목활자가 있다. 이 목활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sup>30)</sup>에 의해서 그 印本이 조사되어지고 활자의 字形과 書體的 특징이 연구되어진 바 있다. 純祖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고, 주로 湖南地方에서 주로 민간출판물을 印行하는 데 사용된 목활자이다. 명칭은 ‘徐氏木活字’, ‘完營印書體木活字’ 등으로도 불려졌으며 ‘지갯다리획인서체자’는 글자자체의 특이한 획의 모양에 의하여 정해진 명칭이다. 또한 남아있던 活字實物과 印刷器具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sup>31)</sup>에 조사되어 알려져 있었다. 그 활자와

30) 尹炳泰, “倣聚珍板式印書體完營木活字印本의 一例: 種藟譜를 中心으로,” 『동대문도서관보』 제3호(1974. 4), 43-49.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3), 103-109.

인쇄용구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입수, 보관해오고 있으며 보물 제865호로 지정되어 있다.<sup>32)</sup>

『種譜譜』, 『桂苑筆耕集』 등이 완영에서 이 활자로 인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자 자형은 독특한 지갯다리획과 각 글자의 왼쪽으로 길게 빠치는 획을 더 길게 쓰고 있는 특징이 있다.

#### 4. 조선시대 완영 간본과 특성

조선시대 지방 감영의 출판은 크게 왕명에 의한 경우와 해당 지역 감영의 주도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것으로 파악된다. 실록의 기록과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완영의 서책 간행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왕명에 의한 경우를 실록의 기사를 통해 왕명의 내용, 즉 간행의 지시 방법과 간행한 서책의 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영에서 간행하는 서책은 그 저본이 되는 책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 9년(1427) 세종은 전라도 감찰사에게 『大全』과 『詩』, 『春秋』를 보내면서 『性理大全』의 예에 따라 간행하라는 傳旨을 함께 내렸다.<sup>33)</sup> 이 때 하나의 서적을 여러 도에서 分刊하게 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는데, 세종 15년(1433) 전라도와 강원도에 『鄉藥集成方』을,<sup>34)</sup> 세조 2년(1456)에 강원도·전라도·경상도에 『新纂兵要』를,<sup>35)</sup> 세

31) 青木修正, “本館所藏 朝鮮古活字及印刷道具一式,” 『文獻報國』 第8卷 第4號(1942)卷首圖版.

32) 文化財管理局 編,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8), 83-87.

33) 『세종실록』 세종 9년(1427) 10월 28일.  
“傳旨全羅道監司 今送『大全』·『詩』·『春秋』 依前送『性理大全』例刊板.”

34)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8월 27일.  
“命分刊『鄉藥集成方』于全羅·江原兩道.”

35) 『세조실록』 세조 2년(1456) 2월 2일.  
“分送新纂『兵要』 江原·全羅·慶尙道刊板.”

조 14년(1468)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에 樂書를<sup>36)</sup> 分送하여 간행하게 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와 달리 각 도별로 간행 서적을 지정·下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조 12년(1466)에 세조는 『解頤』는 전라도, 『講解律』는 경상도, 『辨疑』는 충청도에서 간행하도록 명하였다.<sup>37)</sup> 이처럼 중앙에서 저본을 제공하는 이유는 善本을 간행케 한다는 의미와 함께 복수의 지역에서 분간하여 합하는 경우에는 字體가 동일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인출한 서책은 중앙으로 올려 보내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兵將圖說』(영조 18년, 1742)과 같이 간행 감영으로 하여금 중간·광포하게 하거나,<sup>38)</sup> 현종 13년(1672) 濟州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湖南道臣에게 經書를 인출하여 제주로 들여보내도록 한 경우도 있다.<sup>39)</sup>

간행의 방식은 주로 판각이었으나 특별히 번각을 지시한 사례도 보이는데, 정조 20년(1796)에 주자소에서 인쇄한 『御定史記英選』을 완영에 내려 보내면서 번각·상송하게 하였다.<sup>40)</sup> 또 단종 1년(1453)에 鑄字本 『左傳』 1部를 전라도에 보내어 번각하게 하면서 전라도 관찰사 金連枝에게 승도와 閑人을 모집하여 간행되 절대로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수시로 인쇄하라는 諭示를 함께 내려<sup>41)</sup>

36) 『세조실록』 세조 14년(1468) 4월 28일.

“命分送樂書于慶尙·全羅·忠淸·江原道 開刊.”

37) 『세조실록』 세조 12년(1466) 7월 1일.

“… 分送『講解律』于慶尙道, 『解頤』于全羅道 『辨疑』于忠淸道 使之刊印各五百件 廣布中外.”

38) 『영조실록』 영조 18년 10월 15일.

“命各道重刊『兵將圖說』 承旨洪象漢言『兵將圖說』雖有重刊頒賜之命 然京中頒賜 無以廣布 宜令各道重刊廣布 上從之.”

39) 『현종실록』 현종 13년(1672) 윤7월 17일.

“命湖南道臣印經書 入送濟州 先是 朝廷送御史李夏于濟州 廉察牧守 咨訪風俗 夏還言 別區 書籍不多 請印送經書 以振士風 至是 入送.”

40) 『정조실록』 정조 20년(1796) 12월 25일.

“鑄字所印進『御定史記英選』頒賜諸臣 分藏于太白五臺赤裳三處山城 仍命嶺湖南關西翻刻以進.”

41) 『단종실록』 단종 1년(1453) 6월 5일.

“初 左參贊許詡進鑄本『左傳』一部曰 此本字大 便於觀覽 請令集賢殿校正 送于全羅道刊板 且啓曰 錦山郡事權技已備板木 至是 諭觀察使金連枝曰 募僧徒及閑人開刊 切勿煩民 且隨宜印進.”

간행으로 인한 폐단이 없도록 특별히 지시하기도 하였다.

완영에서 왕명으로 간행된 서책은 위에서 보이는 것 외에도 『武經七書』(선조 40, 1607),<sup>42)</sup> 『東賢奏議』과 『續經筵故事』(영조 10, 1734),<sup>43)</sup> 李善註本 『文選』(명종 14, 1553),<sup>44)</sup> 『辟癩新方』(영조 3, 1727)<sup>45)</sup> 등이 있다.

간행 후에 책관은 감영에서 보관하기도 하였으나 鑄字所에 올려 보내기도 하였는데, 세종 11년(1429)에 『시경』과 『예기』의 책관을 전라도 감사가 마치자 세종이 주자소에 보관하게 하였다.<sup>46)</sup>

왕명에 의해 지방 감영에서 편찬된 서적들은 대체로 통치나 양반 생활에 필요한 경서류, 유가류, 사서류, 병서류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다음으로 살펴볼 관찰사 주도에 의해 간행된 서적에 개인 문집이 많은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드문 경우이지만 왕명에 의해 지방 감영에서 문집을 간행한 사례도 있는데, 완영의 경우에는 정조 15년(1791)에 정조가 金憲에게 『林慶業實紀』를 편집하게 하고, 徐龍輔에게 『金德齡遺事』를 편집하게 하여 서문을 지은 후 호남의 도신에게 간행하도록 명하였다.<sup>47)</sup>

다음으로 완영에서 간행된 서적 중에 관찰사의 주도로 간행된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왕명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는 실록에 사례가 매우 드문데,

42) 『선조실록』 선조 40년 4월 3일.

“以內出武經七書 傳于柳公亮曰 此武經七書不(秩) [帙], 其不(秩) [帙] 之卷有處求得全秩二三件 以乙亥庚辰字 刻日印出入內 又一件下送于全羅道 急速開刊 令戶曹紙地措備 三百件印出粧續 上送頒賜事 言于戶曹禮曹校書館.”

43) 『영조실록』 영조 10년 9월 2일.

“命全羅監營 刊進『東賢奏議』及『續經筵故事』.”

44) 『명종실록』 명종 8년(1553) 6월 9일.

“『文選』雖不在講列 乃四六之祖 甚切於儒生讀習 依諫官所啓 李善註本 下送全羅道刊板.”

45) 『영조실록』 영조 3년(1727) 윤3월 12일.

“特下『辟癩新方』一冊 令五部謄書 遍給都民 仍命印送于八道·兩都.”

46) 『세종실록』 세종 11년 3월 6일.

“全羅道監司 進新刊『詩』·『禮』板子 命下鑄字所.”

47) 『정조실록』 정조 15년(1791) 4월 26일.

“上興感於忠壯公金德齡·忠愍公林慶業事 命閣臣金憲 輯『林慶業實紀』 徐龍輔輯『金德齡遺事』 書成 御製弁卷之文 命湖南道臣刊行.”

그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관찰사의 개인적인 의도, 즉 혈연·지역·학연이 개입된 경우가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 간행 사업을 국왕에게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록은 주로 현전하는 서책의 간기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적의 저자 또는 편자와 간행 주체자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간행의 의도가 간행 주체자의 사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8)</sup>

1400년에 간행된 『柳巷詩集』은 저자 韓脩의 아들인 韓尙質이 편찬한 것을 문인 成石塔(전라도감사)과 李通訓(금산현감)이 협력하여 간행하였고, 1452년에 간행된 『梅軒集』은 저자 權遇의 아들 知錦山郡事 權技가 편찬한 것을 門人인 전라도감사 金連枝가 간행하였다. 1571년 2월에 유희춘은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되자 직접 외 조부의 문집 『錦南集』을 간행하였고, 韓應寅의 『백줄재집』 역시 현종 8년(1667)에 그의 증손 聖佑가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간행하였다. 또 申昉의 『둔암집』은 1758년에 그의 사위 洪麟漢이 전라도 감사 때 간행하였다. 朴知誠의 『潛治集』은 그의 문인 元斗杓의 4세손인 全羅監司 元景淳에 의해 간행되었다. 權鐸의 『石洲集』은 권필의 아들 權伉과 교유가 있었던 全羅監司 李東稷이 간행하였다. 이상 몇 가지 사례는 문집의 저자와 간행 주체인 관찰사간의 일정한 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조선시대의 서적 간행에 있어 왕명이 아닌 감영 자체의 의도로 간행한 서적의 상당수가 문집이었으며, 그 간행의 주체는 관찰사가 단독인 경우가 많으나, 『柳巷詩集』의 경우와 같이 관찰사와 사적인 인연이 있는 관할 지역의 수령과 협력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완영의 간본을 정리한 목록(<표 4>, <표 5>)을 참고하여 완영의 간행 서책의 내용과 간행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조선시대 감영 간행의 중앙의 정부의 명령과 관찰사의 의지에 따라 간행

48) 지방관의 문집 간행 배경에 대하여 그 의도에 개인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작용한다는 견해는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嶺南學』 13(2009)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위에서 든 사례는 이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서적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위 표가 완영의 간행 사항을 정리한 것일 뿐이고, 또 기록이나 실물이 전하지 않는 많은 서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로써 지방감영 또는 특정하여 완영의 간행 서적의 고찰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대략적인 추이와 경향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를 살펴보면, 그 종수에서 조선후기가 조선전기에 비해 많지만 주제별로 보면 조선전기가 후기보다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나 후기 모두 기본적으로 유가류와 별집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가류의 경우 이들이 통치의 조선의 기본적인 이념 토대를 제공하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적으로 꾸준히 간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농가류와 의가류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기근과 질병에 대한 급박한 현실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초기의 부족한 도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관종은 전후기를 통틀어 모두 목판본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서적의 대량인출이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기는 후기에 비해 관종이 매우 단순한데, 모두 목판이고, 이 가운데 번각본이 많으며 대부분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금속활자인본을 번각한 것임이 확인된다. 번각본은 조선 전기의 중국본(원본, 명본)을 번각한 것, 목활자본(결송유취), 금속활자본의 번각본(초주갑인자 번각본 『고금역대십구사략』)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전기의 번각본은 을해자본의 번각본이 많다(『십구사략』, 『동문수』, 『주자증손여씨향약』).

조선후기의 경우 전기와 마찬가지로 유가류와 별집류의 비중이 높지만, 이외에 예류와 정법류, 소학류, 잡사류, 조령·주의류, 전기류 등에서 간행 건수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관종은 전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인쇄술의 발달과 사회적 안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에도 여전히 목판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금속활자번각본(정유자, 정리자본 『향례합편』), 목활자번각본(『동의보감』), 목판본번각본(『삼운성취』, 『명의록언해』), 목활자본 등이 있다.

조선시대 完齋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표 4> 조선 전기 전주지역 간행 추정 간본 목록

분류	서명	편저자	현소장처	시기	판종	비고
역류	주역		규장각	미상	목판본	
			중앙도서관 (주역전의대전)	세종 11 (1429)	목판본	
춘추류	호전춘추 (춘추호씨전)	호안국 전	규장각 (주역경전대문)	세종 연간	목판본	
예류	예기		장서각	중종 21 (1536)	목판본 (중국)	
			중앙도서관 (예기집설대전)	성종 6 (1475)	목판본	간기: 성화십일년을미 전주부개간
효경류	효경		계명대	성종 6 (1475)	목판본	
사서류	맹자대문		장서각	미상	목판본	
			성암고서박물관	임란 이전	목판본	
사서류 (중용)	중용집략	석돈 편, 주희 사정	동아대	미상	목판본	구결세호현도현토본
사서류	대학		국학진흥원	미상	목판본	
소학류 (자서)	용감수감	행균 찬	규장각	1522~ 1566	목판본	간기: 가정42년고덕산 귀진사개판
			규장각	명종 18 (1563)	목판본	간기: 가정42년고덕산 귀진사개판, 서: 시통화 15년저유...지광
			중앙도서관	명종 18 (1563)	목판본	간기: 가정42년고덕산 귀진사개판, 서: 시통화 15년저유...지광
소학류 (자서)	윤희옥편	최세진 저	중앙대	미상	목판본	리: 가정15년정유(1537) 최세진
			성균관대존경각	중종 31 (1536)	목판본	
			중앙도서관	중종 31 (1536)	목판본	리: 가정15년정유(1537) 최세진
			고려대	중종 31 (1536)	목판본	권수: 윤희옥편인, 가정 15년월일, 최세진근제
별사류	십구사략(고금역대 십구사략통고)	증선지 편, 여진 고	성암고서박물관 (고금역대십구사 략통고)	1568~ 1586	목판본 (초주갑인자 변각본)	발: 정통11년세제병인2 월사판파양죽와여진서
			중앙도서관 (고금역대십구사 략통고)	1506~ 1544	목판본 (명판변각)	서문: 대덕1년주천기, 정 통9년대본, 후서: 정통11 년 여진, 내사기: 융경2년 5월일내사행부호군송순, 십구사략일건명제사은

분류	서명	편저자	현소장처	시기	판종	비고
잡서류	정관정요	오경 찬	규장각	미상	목판본	권수: 여제서, 성화원년 지순4년...곽사정서
			고려대	미상	목판본	
조령, 주의류	육선공주의 (당육선공집)	육지 찬	고려대 (당육선공주의)	미상	기타 (갑인자체)	
전기류	강릉김씨족보		.	.	.	.
전기류	장감박의	대계 찬	증양도서관 (역대장감박의)	미상	목판본	서: 지정을사...양유정, 성종20년(1489) 諸道관찰사에게개간.반포하게함(조선왕조실록)
정법류	사송류초 (사송류취)	김백헌 편	증양도서관 (사송류취)	선조 18 (1585)	목판본	발: 만력을유.정염(김치우 "고사촬요책판목록과 그수록간본연구"중 언급)
			규장각 (사송류취)	선조 6 (1573)	목판본	
			규장각 (사송류취)	선조 18 (1585)	목판본	발: 만력을유.정염김태정
정법류	결송류취					
유가류	경연강의 (주자경연강의)	주희 찬	영남대 (주자경연강의)	1559	목판본	발: 가정38년8월상한가선대부전주부윤송순諱識
			고려대 (진서산경연강의)	명종 14 (1559)	목판본	발: 가정38년추8월상한가선대부전주부윤송순근지(김치우 "고사촬요"중 언급)
			증도(진서산경연강의: 주자경연강의)	명종 14 (1559)	목판본	識: 가정38년...송순, 형태사항에 전주간행
			안동 유봉춘가	명종 14 (1559)	목판본	(김치우 "고사촬요책판목록과그수록간본연구"중 언급)
유가류	학부통변	진건 지	계명대	선조 9 (1576)	목판본	권말목서: 만력4년병자최현숙(전라감사-최응룡)령공 선화호남 이판본채전주 차인득지 기년팔월하浣誌, 발: 가정계사.진건(김치우 "고사촬요책판목록과그수록간본연구"중 언급)
			증양도서관	1568~1608	목판본	총서: 가정무신맹하초길동莞陲서우청란초당
			고려대	1506~1567	목판본	총서: 가정무신...陲건서우청란초당
			국학진흥원	미상	목판본	

조선시대 完齋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분류	서명	편저자	현소장처	시기	판종	비고
유가류	정속(정속편)	왕일업 저	중앙도서관 (정속편)	미상	목판본	서:왕지화
유가류	여씨향약	주희 편	국학진흥원	미상	목판본	
유가류	언해여씨향약(주자 증손여씨향약언해)	주희 편, 김정국 언해	전남대 (주자증손여씨향약)	증종 12 (1517)	목판본 (을해자)	서:가정병진남향인이황
			전남대 (주자증손여씨향약)	명종 20 (1565)	목판본	
			장서각 (주자증손여씨향약)	명종 20 (1565)	목판본	간기:을사(?)맹춘일전 주부개간
유가류	양몽대훈	응대년 저				
유가류	소학	주희 집주				
유가류	소학	주희 집주				
유가류	계몽					
석가류	석존의식 (신간석존의식발)					
병가류	진서	방현치 등봉척찬				
농가류	잠서					
농가류	잠서					
농가류	농서					
농가류	농사직설	정초 등 찬				
의가류	진맥수지	오홍 찬				
의가류	지장도 (상한활인지장도)	오서 찬				
의가류	의학정전 (신편의학정전)	우박 찬, 우수우 교정	경기대 (신편의학정전)	미상	목판본	
			경기대	명종 26 (1531)	목판본	
의가류	오장도 (구회법오장도)	오간 저				
의가류	언해산서					
의가류	상한지장도 (상한활인지장도)	오서 찬				
의가류	상한부					
의가류	삼원연수서 (삼원삼찬연수서)	이봉비 찬	성암고서박물관	세종 20 (1438)		김치우 "고사촬요책판 목록과그수록간본연구" 언급
의가류	벽온방 (간이벽온방)	김순몽, 유영정, 박세거 등 찬				
의가류	맥결 (찬도방론맥결)	고양생 편집, 허준 교정				

분류	서명	편저자	현소장처	시기	판종	비고
의가류	마의방(신편집성마의방, 신편우의방)	권중화 외 찬				
의가류	동인경(신간보주동인수혈침자도경)	왕유일 찬				
의가류	계주서	유의손 찬				
의가류	구급간이방	윤호 등수명 찬	영남대, 규장각	성종 20 (1489)	목판본	
			고려대	미상	목판본 (을해자변가)	
의가류	향약집성방	유효통	한국국학진흥원	조선 증기	목판본	세종15년(1433)8월27일 간행 명함(조선왕조실록)
의가류	구급방		국학진흥원	미상	목판본	세조12년(1466)6월13 일8도에하사(조선왕조 실록)
술수류	천운소통	요선 찬	규장각	1506~ 1544	목판본	서:영락사년...합허자
예술류	귀거래사	도잠(진) 저				
예술류	병위삼	위응물 저, 이박광 서				
예술류	왕우군서	왕희지 서				
예술류	인황법체					
예술류	행춘법첩대자	이암 서				
총집류	고문진보	황건 편, 백정 음역, 유엽 교정				
총집류	언해절구					
총집류	시가일지	회열 저				
총집류	문장계범	사방득 편				
총집류	동문수	성삼문 등 편, 김종직 속	고려대	증종 24 (1529)	목판본 (을해자변가)	발: 홍치원년.신종호차 운발
			고려대	1546~ 1591	목판본 (을해자변가)	
			동국대 중앙도서관	성종 19 (1488)	목판본 (을해자변가 혼입보판)	발: 홍치원년구월일고 영신호차순발
			중앙도서관	1488	목판본	발: 홍치원년.신종호
			중앙도서관	미상	목판본	
			성암고서박물관	임란 이전	목판본 (을해자변가)	발: 홍치원년구월일고영 신호차순발
			성암고서박물관	임란 이전	목판본 (을해자변가)	

조선시대 完齋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분류	서명	편저자	현소장처	시기	판종	비고
			장서각	성종 연간	목판본 (을해자변가)	
총집류	청구풍아(점필재정 선청구풍아)	김종직 편	성암고서박물관 (점필재정선청구 풍아)	1506~ 1680	목판본	발행사항에 전주발행
			중앙도서관 (점필재정선청구 풍아)	성종 연간	목판본	
별집류	남헌문집(남헌선생 문집)	장식 저				
별집류	도은집 (도은선생집)	반실, 이승인 찬	국학진흥원 (도은집)	미상	목판본	
별집류	동사집	이정귀 공저	고려대	미상	목판본	
별집류	목은집 (목은시교)	이색 저	충남대(목은집)	임란 이전	목판본	
			규장각 (목은집)	미상	목판본	
별집류	양촌집 (양촌선생문집)	권근 저	성암고서박물관	세종 8 (1426)	목판본	
			중앙도서관	세종 8 (1426)	목판본	
별집류	자양문집	주희 저	고려대	1567~ 1608	목판본	
별집류	진서산집 (진서산문집)	진덕수 찬				
별집류	진후산시 (진후산시주)	진사도 저, 임연 주				
	역대교수도(역대교 수승통지도)	김정국 저				
	율학해이					고사촬요, 세조2년(1466) 7월1일 전라도에 간인을 명함(조선왕조실록)
	칙언					

<표 5> 조선 후기 완영 간행간본 목록

분류	서명	편저자	간행시기	판본종류
예류(사례류)	사례편람	이재	헌종 10년(1844)	목판본
예류(사례류)	상례비요	신의경	인조 26년(1648)	목판본
예류(삼례서류)	항례합편	이병모 등	정조 21년(1797)*	금속활자번각본(정유자, 정리자)
예류(개인예설류)	의례문해	김장생	인조 24년(1646)	목판본
소학류(자서)	전운옥편	편자미상	헌종 10년(1844)*	목판본
소학류(운서)	삼운성취	홍계희	영조 45년(1769)*	목판본 번각본
소학류(운서)	정음통석	박성원	정조 15년(1791)*	목판본 번각본
정사류	사기평립	편자미상	간행년미상	
편년류	강목	주희 찬	영조 47년(1771)*	
잡사류(기사)	명의록	정조	정조 1년(1777)*	금속활자번각본(정유자)
잡사류(기사)	명의록언해	정조	정조 1년(1777)*	정유한글목활자본, 목판본
잡사류(기사)	속명의록	정조	정조 2년(1778)*	금속활자번각본(정유자)
잡사류(기사)	속명의록언해	정조	정조 2년(1779)*	정유한글목활자본
초사류(초사)	사기영선	정조	정조 21년(1797)*	정유자번각
조령, 주의류(조령)	가체신금사목	편자미상	정조 12년(1788)	정유자번각
조령, 주의류(조령)	어정운음	영조	정조 즉위년(1776)	임진자번각
조령, 주의류(조령)	유제도도신운음	정조	정조 18년(1794)*	목판본번각본
조령, 주의류(조령)	유중외대소민인 등척사운음	헌종	헌종 6년(1840)*	정유자본 번각
조령, 주의류(주의)	육주약선	정조 연편	정조 21년(1797)*	정유자본성대-정유자번각본, 이대-정유자, 부산대-목판본)
조령, 주의류(주의)	동원주의	이회조	영조 10년(1734)*	목판본
조령, 주의류 (연강-경연)	속연경고사	이회조	영조 10년(1734)*	
전기류(별전)	동춘연보	편자미상	간년미상	정유자본
전기류(별전)	우암선생인행록	송시열	광무 4년(1900)*	목활자본(지갯다리확인서체)
전기류(총전일반)	달성비지록	서문규	숙종 31년(1705)	목판본
보계류(일반족보)	양주조씨족보	조영국	영조 19년(1743)*	목판본
보계류(일반족보)	풍산홍씨족보	홍상한	영조 44년(1768)*	목활자본
정법류(통제)	대전통편	김치인	순조 21년(1821)*	목판본
정법류(전례)	국조상례보편	김재로	영조 28년(1752)	목활자본
		홍계희 증보	영조 33년(1757)	
정법류(형옥, 사송)	증수무원록	구택규 증수	정조 20년(1796)	운각활자(원문), 정유자(발문)
정법류(형옥, 사송)	흠휼전칙	정조	정조 2년(1778)*	목판본
정법류(형옥, 사송)	대명률	고사경 김지	순조 21년(1821)*	목판본
유가류	경민편	김정국	영조 21년(1745)?*, 영조 24년(1748)?*	목판본번각본
유가류	경세문답	영조	영조 38년(1762)	목판본

조선시대 完齋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분류	서명	편저자	간행시기	판본종류
유가류	성리대전	호광 등편	영조 20년(1744)*	
유가류	성리대전서	호광 등편	인조 22년(1644)	
유가류	소학언해	영조	선조 19년(1586)	
유가류	훈의소학	옥당제신	영조 20년(1744)	
유가류	주서백선	주희 저, 정조 편	정조 19년(1795)*	금속활자본각본(정유자)
유가류	율곡전서	이이	광해군 3년(1611)	목판본
유가류	주자대전	주희	영조 47년(1771)*	금속활자본각본(을해자)
도가류	도학정맥	권필	영조 18년(1742)*	목판본
병가류	철서	손무 등	선조 40년(1607)*	
농가류	종저보	서유구	순조 34년(1834)*	
의가류	동의보감	허준	순조 14년(1814)*	목활자본본각본
의가류	의학정전	우단	순조 19년(1819)*	목판본본각본
의가류	침구경험방	허임	인조 22년(1644)*	개주갑인자본
유서류	연주집	홍우산장주인	광서 10년(1884)*	
총집류(일반)	양대사마실기	정조	정조 23년(1799)	목판본
총집류(일반)	황화집	편자미상	영조 49년(1773)	목판본
별집류(어제)	어제추모록	영조	영조 46년(1770)*	금속활자본각본(경진자)
별집류(일반)	간이집	최립	인조 9년(1631)	갑인자체훈련도감자본 번각
별집류(일반)	고죽집	최경창	숙종 9년(1683)	목판본
별집류(일반)	동약집	이안눌	인조 18년(1640)*	목판본
별집류(일반)	두울분운	정조 명편	철종 원년(1850)*	금속활자본각본(정리자)
별집류(일반)	둔암집	신방	영조 34년(1758)*	목판본
별집류(일반)	명암집	이해조	숙종 39년(1713)	
별집류(일반)	백강집	이경여	숙종 10년(1684)	
별집류(일반)	백출재집	한응인	현종 8년(1667)*	목판본
별집류(일반)	백주집	이명한	인조 25년(1647)	목판본
별집류(일반)	석주집	권필	영조 16년(1740)*	목판본
별집류(일반)	완암집	정래교	영조 41년(1765)*	목판본본각본
별집류(일반)	월헌집	정수강	영조 49년(1773)*	목판본
별집류(일반)	이락정집	신용개	숙종 8년(1682)	목판본
별집류(일반)	인재집	홍섬	현종 9년(1668)	목판본
별집류(일반)	정관재집	이단상	숙종 8년(1682)	목판본
별집류(일반)	주자문집	주희	영조 47년(1771)*	목판본
별집류(일반)	죽서집	이민적	숙종 10년(1684)	목판본
별집류(일반)	창하집	원경하	간년미상	
별집류(일반)	청계집	양대박	광해군 10년(1618)	
별집류(일반)	화당집	신민일	숙종 46년(1720)	목판본
별집류(일반)	후재집	김간	간년미상	목판본

## 5. 결 언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감영 인쇄문화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전라감영, 즉 완영의 서적 간행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감영의 인쇄문화는 감영이 있었던 지역의 경제와 인근의 고을에도 교육 및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원, 태인 등지에서 인쇄문화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와 후기의 책판에 관한 연구에서 전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실물로 남아있는 서책과의 비교검토와 책판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영에서의 서적간행 경향을 왕명에 의한 경우와 관찰사의 의지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록을 확인하였는데 그 밖에도 관찰사의 뜻에 따라 간행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영이 아닌 인근 고을의 서원이나 사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선시대 전반의 출판 시스템을 이해하기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출판 인쇄방식을 찾아내고 이를 유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姜惠英. “南原地域 印刷文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姜惠英.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 文化考.” 『국회도서관보』 제20호(1983).  
權熙昇.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66.  
金致雨.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김병남. “전주 지역의 한지 발달과 현실.” 『남도민속연구』 10(남도민속학회, 2004).  
김태웅. “조선후기 전라감영의 제정구조와 운영.” 『전라감영연구』. 전주: 선명, 2008.

- 南權熙. “慶州에서 刊行된 書籍研究.” 『新羅文化』 第19集(2001. 8).
- 남권희. “諺解絶句의 간행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8(1999. 8).
- 南權熙.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文化財管理局 編.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서울: 文化公報部文化  
財管理局, 1988. 83-87.
- 문화재청 편. 『한국의 옛지도』. 대전: 문화재청, 2008. 368.
- 배현숙. “紹修書院의 收藏과 刊行書籍考.”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8).
- 손계영. “地方官과 先祖 文集 刊行.” 『嶺南學』 13(2009).
-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 -』.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宋日基. 『全南 書院의 木板』. 光州: 전남대학교문헌정보연구소, 1998.
- 玉泳晷. “조선시대 태인지역의 印刷文化 研究.” 『書誌學報』 제30집(2007. 12).
- 玉泳晷. “册版目錄을 통해본 朝鮮時代 善山地域의 木板印刷文化 研究.” 『書誌  
學研究』 제34집(2006. 8).
- 玉泳晷.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대학원. 2002.
- 柳基石.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淸州大學校大學院.  
1990.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윤병태. “한국의 書目에 대하여.” 『圖書館·情報學論集』 창간호(1984. 4).
- 尹炳泰. “倣聚珍板式印書體完營木活字印本의 一例: 種藪譜를 中心으로.” 『동  
대문도서관보』 제3호(1974. 4).
- 윤봉택, 노기춘. “濟州牧에서 開刊된 17세기 책판 연구.” 『書誌學研究』 제34집  
(2006. 8).
- 이태영. <완판본과 원영 목판> 『기록문화의 땅 전주』.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2006.
-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 선명, 2008.
- 이희권. “조선후기의 수령과 그 통치기능.” 『전라문화논총』 (전북대 전라문화연  
구소, 1988).

임선빈. “조선초기 外官制度의 운영구조와 특징 - 東班 外官職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전북대박물관. 『전주향교 장관각 목판정리사업 최종결과 보고서』, 전북대박물관, 2005.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1.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3.

최지선. “조선시대 호남관찰영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2007.

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전라감영연구』. 전주: 선명, 2008.